

저경력교사 특정 지역 집중 개선

도교육청, 중등교원 인사제도 개선 공청회

실거주교사 순환 전보 유예 삭제·전보 교원수 축소 등 논의
교원단체, 안정적 학교 교육과정 운영 기틀 작용 '긍정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2일 청주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저경력교사 특정 지역 집중 현상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중등 인사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교육공동체와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심 있는 중등교원과 교육전문직원,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저경력교사의 특정 지역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한 교원인사제도 개선 추진 현황 발표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중등교원, 변호사, 학부모로 구성된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신규교사 및 정년내 기간제 교사가 특정 지역과 학교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학교별로 우선 인배하는 방안과, 순환 전보가 채택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실거주교사 순환 전보 유예 삭제,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학교당 전보 가능한 교원 수를 축소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이번 인사제도 개선안에 대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는 저경력과 고경력 교사가 조화를 이뤄 안정적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기틀로 작용할 것이라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새롭게 적용되는 인사제도 개선안이



전북도교육청은 22일 청주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저경력교사 특정 지역 집중 현상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중등 인사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적용되길 바랐다. 이시기 교원인사과정은 '이번 인사제도 개선 공청회는 어느 한 지역에 저경력교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저경력교사와 저경력교사가 적절한 조화

를 이루고,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청회 이후 인사지원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새로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봉사동아리, 아·태 마스터스 폐회 자원봉사 참여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 봉사동아리 재학생 70명은 지난 20일 열린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 대회 폐회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대 보건관리학과 지역사회 연계 봉사동아리인 'WITH 동행'은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했다. 동아리 기장인 김진석 학생(보건관리학과 3년)은 "전북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에 봉사할 수 있어 자부심을 느끼며, 동아리원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따라줘서 잘 마무리한 것 같아 뿌듯하다"며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지역 행사에 봉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지나 지도교수는 "이 행사를 계기로 코로나19로 단절됐던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의료가민관의 산학 연계를 활발히 추진해 글로벌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MZ세대 타운홀미팅이 22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기인홀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포함한 타운홀미팅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미래농정 농촌활력 아이디어 구상

전북대, 전북도와 공동으로 'MZ세대 타운홀미팅' 기후변화 따른 농업구조 변화 등과 관련 대안 도출

MZ세대 타운홀미팅이 22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기인홀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전북대학교와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제5대 전북대 농생명대학 학생회 공동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농생명 분야 청년들이 직접 청년농 육성 등 농촌 활력 분야에 대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두 차례 개최된 이후 세 번

째 열린 자리다. 전북대를 비롯해 지역 5개 대학 학생 등 1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의 1부에서는 20개 그룹의 학생팀이 소주제별로 그룹토론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서 농업 관련 청년 창업과 전북의 농산물·농식품에 대한 마케팅 방안,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 고도화 방안,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구조의 변화 등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와 대안들이 도출됐다. 이어 2부에서는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농생명 산업 수도 전라북도, 청년의 역할'이란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양오봉 총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MZ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 전북 미래농정에 대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청년 학생들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오늘과 같은 자리가 우리 전북의 농생명 산업의 수도로 발전하기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육문화회관, 내일부터 학부모 위한 비대면 특강

전주교육문화회관은 오는 24일부터 6월 21일까지 학부모를 위한 비대면 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금쪽같은 우리 아이,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낮 시간에 교육 참여가 힘든 직장인 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집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저녁 시간을 이용해 비대면 플랫폼인 줌(Zoom)으로 진행된다. 먼저 24일 저녁 7시에 임영주 부모연구소대표와 함께하는 유아 자녀와 부모를 위한 가족 공감 대화법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2회차는 마음성장학 교 김은미 대표의 건강한 가족문화 회복을 위한 독서테라피를 6월 8일 저녁 7시에 실시한다. 이어 3회차는 아라차립 심리상담소 박현순 대표의 사춘기 자녀에 대한 6월 21일 저녁 7시 진행할 예정이다. 강의 희망하는 학부모나 전주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각 강의 전날까지 QR코드로 접속해 전주교육문화회관 누리집 (https://lib.jbc.go.kr/jc)에서 원하는 강의를 신청하면 된다. 강의 후 성실하게 참여한 참가자에게는 강연 도서도 증정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모로코 대학과 한국학 전문가 육성

전북대, 교육부 '해외한국학진흥사업' 선정 케니트라 이븐 토파일대와 전문과정 개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2023년도 해외한국학진흥사업(세양형)에 선정돼 모로코 케니트라 이븐 토파일대학교(Universite Ibn Tofail de Kenitra)와 모로코 차세대 한국학 전문가 육성 사업을 공동 수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대가 모로코의 명문대학인 케니트라 이븐 토파일대학교와 연계 협력을 통해 한국학 교육 및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해 아프리카 내 한국학 확산에 기여할 차세대 한국학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이 사업 선정으로 전북대는 아프리카 국가에 한국학 연구와 문화를 전파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글로벌대학으로서의 위상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전북대 조화민 국제협력처장은 지난 3월 모로코를 방문해 케니트라 이븐 토파일대학교 힌두 바디(Hindou BADIH)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연구·사업팀을 구성하고, 압델라 티프 미라우이(Abdelatif MIRAUDI) 모



로고 고등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학연구센터 설립에 필요한 교육부 절차 이행 지원에도 합의했다. 이를 통해 전북대는 케니트라 이븐 토파일대학교 경제·경영대학에 한국경제 및 문화산업 관련 석·박사 전공 과목을 개설하고, 전북대 공동 지도교수 시스템도 점진시켜 공동 학위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 대학에 한국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한국학 연구 자료와 한국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아카이빙 서비스를 제공해 모로코 학생들이 한국과 관련된 자료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모로코가 한국학 연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한국학 연구 지원의 활성화시켜 한-아프리카 동반 성장의 모멘텀으로 만들겠다"며 "특히 아프리카에 진출한 한국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아프리카 학생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협력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독립적 삶 살아갈 수 있다”

우석대, 황운재 오클라호마 주립대 교수 초청 특강 “다양한 관점으로 적절한 교육환경 조성 노력할”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현재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황운재 동문이 모교 강단에 섰다. 22일 우석대에 따르면 황운재 교수 초청 특강을 마련했다. 최근 교육관 세미나실에서 미국 특수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황 교수는 미국과 한국의 특수교육과정 차이에 관해 설명하고 최신 특수교육의 동향을 소개했다. 황 교수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스스로 선택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며 “그들이 사회로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 다양한 관점으로 적절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석대학교를 졸업한 훌륭한 선배들이 후배들과 제자들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자긍심을 갖고 특



수교육 분야의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를 1997년에 졸업한 황운재 교수는 미국 폰트본 대학(Fonbonne University)에서 농교육 조교수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캘러트 대학(Callaudt University)에서 한국인 최초로 농교육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오클라호마 주립 인문과학대학(University of Science and Arts of Oklahoma) 농교육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은성 기자

‘생각하는 수업 만들기 위한 교사의 몸부림’

도교육청, '전북 The 미래교육' 1차 특강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 전북 The 미래교육 특강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전주평화의전당에서 열린 1차 특강에는 손준호 광주태보초 수석교사가 ‘생각하는 수업을 만들기 위한 교사의 몸부림’을 주제로 수업 혁신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수업 혁신은 전북교육청의 10대 핵심 과제중 하나로 △탐구하고 실천하는 학생참여형 수업 △학생 주도 창의융합 수업 지원 △교사 수업역량 강화 및 전문성 신장 △교수공동체를 통한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질적 개선을 통해 수업 혁신을 이끌고,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적용·일

일 변화를 현장에 실천하기 위함이다. 이날 특강에는 사전에 신청한 도내 유·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150여 명이 참석해 수업혁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전북미래학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특강 운영으로 학교 현장의 내실 있는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2차 특강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치명자산성지평화의전당에서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를 초청해 이뤄진다. 이날 'AI 시대, 학교교육 방향과 교수법'을 주제로 △미래와 학교교육의 대처 질문 재해석 △미래역량과 개념 지식의 관계 생성 △AI시대의 교육 △Chat GPT와 교육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학생 마약 예방 지도강화 연수

관리자 대상... 지도방안 안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2일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2023년 관리자 대상 마약 예방 지도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생활지도 강화에 통합적 지원이 가능한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감과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북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전문강사가 참여해 학교 마약 예방 지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청소년 마약 사용 실태를 공유하고, 학생생활지도 및 맞춤형 예방 교육 방안에 대해 교육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의 마약 예방 교육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학교급별 마약 예방 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자체 점검 및 컨설팅 지원,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전문가 협의 체 및 전문강사단 운영 등 마약 예방 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한다. 특히 5~6월 중 한 주는 약물 오남용 및 마약 예방 교육 특별주간을 운영해 학생들이 마약의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안내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마약 사용은 출구가 없는 미로로 진입하는 것이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마약류에 절대 접근하지 않도록 학교에서의 마약 예방 교육과 생활지도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번 연수가 학교에서의 마약 예방 교육과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 수업 지원'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9일 청주나래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 연계 인공지능활용 초등수학 수업 지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도내 수학 및 기초학력 담당 교사 교육전문직원 등 190여 명이 참석했다. 2024년부터 초등 1~2학년도를 시작으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이에 전북교육청에서는 2022 개정교과 교육과정 적용 운영 방안 등을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이해, 초등 수학수업 학습 결손 예방 및 학습 격차 해소 지원 방안 초등 인공지능 활용 수업 공유를 통한 교육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수업지원시스템인 '똑똑! 수학탐험대' 개발 배경과 인공지능 활용 수업사례 및 교과교육과정 적용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정은성 기자